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3월 20일



복음 나누기

사순 제3주일 (3월 20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1-9)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당신과 하나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5)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 해봅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루카 13,9)

일상의 삶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주에는, 교육자, 철학자로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였고 제3대 미대통령을 지냈던 '토머스 제퍼슨' 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의 외곽 벽이 심하게 부식되기 시작하자,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들이 돌을 필요 이상으로 청소하기 때문이라는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덜 자극적인 화학 세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념관 관장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제퍼슨 기념관을 그렇게 청소해야 하는가?' 이유는 늘상 비둘기들이 떼 지어 몰려와 똥을 싸놓고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장은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은 왜 우리 건물에 몰려오는 걸까?' 알고보니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장은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미가 많은 것인가?' 이유는 나방 때문이었습니다. 나방이 많이 날아들어 나방을 먹고 사는 거미가 많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관장은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나방이 생기는 것일까' 알고 보니 해질녘 켜 놓은 기념관 불빛이 나방을 끌어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 끝에, 근본 문제가 기념관의 불빛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 기념관 측은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제퍼슨 기념관은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켜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나방이 모이는 시간대에 불을 켜지 않으니 나방이 날아들지 않았고, 자연히 거미도 없어지면서 비둘기 역시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념관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켜는 것이 기념과 벽의 부식을 막은 해결책이었습니다.

(박종하, 『틀을 깨라』 참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미래사목연구소 p66-67 재인용)

은혜로운 회개의 때인 사순시기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위 이야기의 관장처럼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보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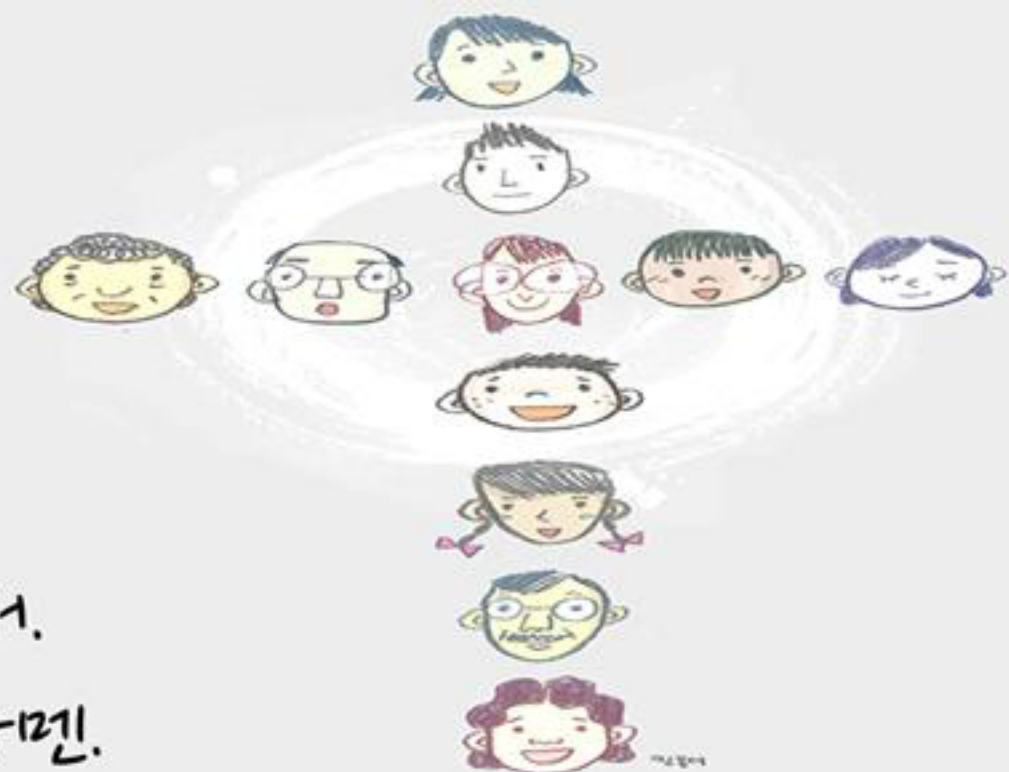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를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역할배분 ②

◆ 서기의 역할

- ① 선정된 서기는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 를 준비하고 모임 진행 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 를 모임 전에 미리 챙기고 지난 모임 때 작성한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 ③ 모임 전 반장과 진행자에게 지난 모임에 작성한 회의록을 1부씩 복사해 주어 미리 읽어 보도록 합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열람을 원할 경우 숫자만큼 복사해 나누어 줍니다.
- ④ 모임 당시 회의록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 ⑤ 나눔을 기록할 때는 가능한 무기명으로 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적인 나눔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기록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⑥ 모임이 끝나면 회의록을 반장에게 제출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 ⑦ 회의록이 소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타인(타 모임 신자 혹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 등)에 의해 아무렇게나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복음나누기 진행자의 역할

- ① 복음나누기 7단계 진행 순서를 모임 전에 충분히 숙지합니다.
- ② 소공동체 모임의 진행이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합니다.
- ③ 모임이 시작되면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또박또박 멘트를 읽어가며 진행합니다.
- ④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도, 성경낭독, 묵상나누기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⑤ 특히, 6단계에서 지난 주 활동 나눔 및 활동 계획 수립, 그리고 신앙상식 공부 시, 각 담당이 자신의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 봉사 활동 담당자의 활동 나눔 안내 등)

<다음 호에 계속...>